

# '누명'이라는 이순자... 분통 터지는 광주

### “전두환, 발포 명령권 없었다”며 720쪽 걸쳐 역사 왜곡

### 5·18단체·법조계 “시민 우롱 말아야... 법적 책임 물을 것”

#### ‘이순자 자서전’ 논란

“남편은 5·18 발포명령과 관련 없다. 검찰과 언론이 뒤집어 썼다.” “나도 그들(5·18 유족)처럼 운영적으로 5·18의 피해자라는 동병상련의 마음까지 들었다.”

지난 24일 720쪽 분량으로 출간된 이순자 자서전에는 그의 성장과정과 가족사가 일부 담겨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남편인 전두환의 입장에서 바라 본 5·18과 12·12 등에 할애했다.

26일 5·18 단체 및 지역 법조인계선이 자서전을 두고 “광주시민을 더 이상 우롱 말고 그 입 다물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서전 출간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

반발을 부른 내용은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639쪽)”, “그동안 남편에게 씌워졌던 죄목 가운데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학살명령자’라는 끔찍한 누명이었다(653쪽)”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씨는 자신의 집을 찾은 한 스님으로부터 5·18 희생자를 위한 천도기도를 올리자는 제안을 받은 후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내외도 사실 5·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지만...”이라며 자신과 남편 전두환이 ‘희생자’라고 강변했다.

이씨는 남편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광주(학살)와 남편은 무관하다”는 억지 주장을 수차례 답했다. 그는 “5·18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은 결코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내릴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690쪽)”고 했다.

법정에서 5·18 피해자들과 소복을 입은 가족들을 보고나서, 또 전두환을 향해 ‘살

인마’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나 역시 남편과 자식이 소중해 가슴 앓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사건의 주범으로 ‘오해’받는 남편을 향해 충분히 그런 저주를 쏟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637쪽)”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그러면서도 “이 재판(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에서도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는 그 필연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 것 이란 예감에 나도 그들처럼(5·18 피해자) 운영적으로 518 사건의 피해자라는 처절한 동병상련의 마음까지 드는 것이었다



다시 켜진 금남로 촛불

(638쪽)”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제정된 ‘5·18특별법’과 그에 따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신분인 그분을 구속한 김영삼 대통령은 국내외로부터 정치보복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690쪽)”고 기술했다.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는 “진실도 모르는 채 (학살자 누명)을 뒤집어 썼다.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이라 우리로서는 참기가 막힌 일이었다”고 했다.

5·18특별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과정 등을 통해 “12·12군사반란~5·17조치~5·18유혈진압 등 일련의 과정은 전두환의 치밀한 집권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데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조작된 시나리오를 법의 이름을 빌어

‘사실화’시킨 역사왜곡의 궤판(643쪽)”이라고 기술했다.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잡은 뒤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는 건 온 세상이 아는 일”이라며 “사법적·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 가짜 주장을 퍼뜨려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저의가 도대체 뭐냐”고 혀를 찼다.

강행욱 변호사는 “이순자 자서전과 4월 초 출간예정인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명예를 훼손당한 광주시민들이 특정될 경우, 부부가 다시 법정에서 설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 해질 18:50 | 달돋이 05:56 | 달질 17:55

**봄비에 촉촉**  
낮 동안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3/12	보성	3/12	호리뒤 맑음	1/12
목포	4/11	순천	4/11	호리뒤 맑음	4/13
여수	4/12	영광	4/12	호리뒤 맑음	1/10
나주	1/11	진도	3/11	호리뒤 맑음	3/10
완도	4/12	전주	3/11	주 차차흐려져비	3/11
구례	1/12	군산	2/11	차차흐려져비	2/11
강진	2/12	남원	2/11	차차흐려져비	2/11
해남	2/11	홍산도	5/12	호리뒤 맑음	5/12
장성	1/1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동해	파고(m)	동해	파고(m)
남부	남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남부	남부	서~북서	0.5~2.0	서~북서	1.0~2.0
남부	남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남해	남해(동)	서~북서	1.0~2.0	서~북서	1.5~3.0
서부	면바다(서)	서~북서	1.5~2.5	서~북서	2.0~3.0

**◇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자외선
- 피부질환: 낮음

**◇ 주간 날씨**

28(화)	29(수)	30(목)	31(금)	4/1(토)	2(일)	3(월)
☁	☁	☁	☁	☁	☁	☁
1/13	6/15	5/17	5/17	5/16	6/16	5/18

## 을 봄 따뜻하고 비 자주 내린다

을 봄 광주·전남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5월에는 일시적 고온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광주·전남 3개월 전망’에 따르면 4~6월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된다. 평년의 월 평균기온은 4월 12.6도, 5월 17.4도, 6월 21.3도이며, 강수량은 각각 99.6mm, 119.8mm, 206.5mm다. 4월에는 이동성 대류 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전망이다. 5월에는 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폭염 등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는 남풍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한편, 27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낮 동안 1~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후 28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 4~6도, 낮 최고기온 13~16도가 지 을과 관련한 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수사관이 3년간 사건 정보 유출 광주지검 순천지청, 직위 해제

검찰 수사관이 3년여 동안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 정보시스템을 조해해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검찰 수사관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189차례 접속해 13명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박근혜 즉각 구속·세월호 진상 규명”

### 주말 금남로 20차 촛불집회

지난 25일 광주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퇴진 등을 촉구하는 제20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분부)’는 이날 오후 6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구속 제20차 광주 시국 촛불집회’에 400여 명의 광주시민이 참

가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적폐청산 ▲사드배치 철회 ▲옛 전남도청 보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에는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서명운동’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알라딘 서점 입구에서 펼쳐졌다. ‘촛불 승리’ 뱃지도 판매됐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5·18 민주광장에서 사천행사인 ‘박근혜 하야시국’이 열렸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이날 주재발언에서는 박근혜 구속, 사드배치 철회와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 옛 전남도청 보존에 대한 발언이 잇따랐다. 소등행사 후에는 세월호 관련 영상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들은 ‘박근혜 즉각 구속’,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세월호 진실규명’ 등이 적힌 박 터프리기 행사를 마지막으로 집회를 마쳤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朴 퇴진’ 현수막 건 전공노 간부 검찰 송치

광주서부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공공기관 청사에 내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간부 10명을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광주 5개 구청과 시청 건물 외벽에 대통령 퇴진 현수막 설치를 주도한 혐의(욕외광고물법 위반 등)다. 전공노 측은 그러나 “박근혜를 귀태라고 표현한 현수막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최순실에게 국경을 통째로 넘기시피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고 표현한 것이 왜 불법이냐”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는 당시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담당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이날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뒤 현수막을 모두 자진 철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1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1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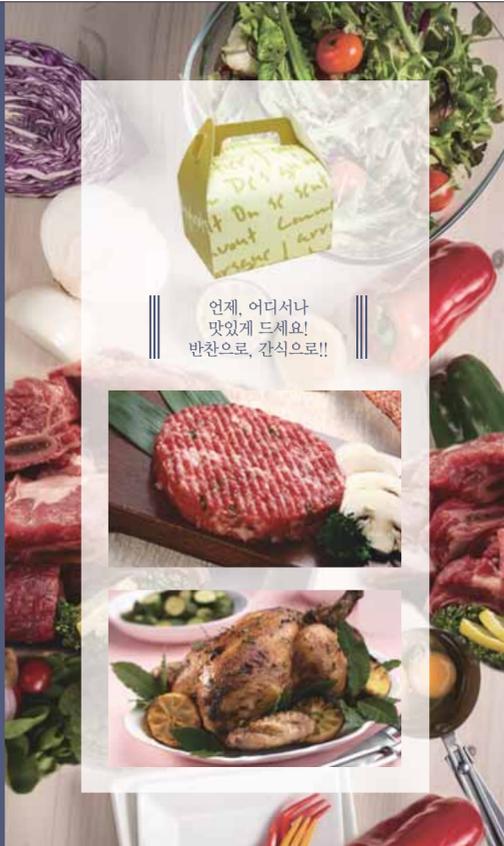
**제품의 특징**

-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러움.
- ▶ 여러 집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스타일(불맛)이 살아있다.
- ▶ 방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뷔시터, 야유회
- ▶ 팬션/콘도
- ▶ 캠핑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드세요!  
반찬으로, 간식으로!!